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 가톨릭 직장인

VOLUME 281 | OCTOBER 2020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0년 10월호 / 통권 281호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0 ©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281 | OCTOBER 2020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전례와 생활	18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24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8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1
신앙과 삶	32 코로나19 속의 신앙생활
듣다 읽다 보다	36 고전음악을 듣다
	42 이탈리아를 거닐다
	46 행복한 책 읽기
	50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4 티나씨의 티비보기
	56 성미술 이야기



## THE COVER

한국 천주교회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1821~1861)은 배티 교우촌을 자신의 본당이자 사목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배나무 고개'라는 뜻의 '배티'성지에 들어서면 2012년에 봉헌된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대성당'이 우뚝 서있다.

충북 진천군 배티성지에서, (류정호 테레로사\_여행작가)



배티 성지 內 최양업 신부가 머물던 사제관(복원)

10월입니다. 언제 폭우와 태풍이 할퀴고 갔냐고 이야기하듯 맑고 시퍼런 하늘과 아침저녁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를 가을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여름의 정취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게 합니다.

코로나 19사태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촌의 딸은 입학식도 화상(畫像)으로 하였고, 1학기에 3번 등교하였습니다. 사촌이 전하길, 자기 딸은 아직 20명 남짓한 반 친구들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 년에 7개월 이상을 하늘을 날아다니던 제 친구는 벌써 7개월째 지상의 책상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제생활 35년 만에 첫 안식년을 얻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을 걸겠다고 제게서 순례길 정보를 얻어갔던 선배 신부님은 골방에서 산티아고 관련 책을 읽으며 마음으로 성지 순례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로 너무나 소소해 보였던 일상이 무너져 버렸고, 평범하게만 보였던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쳐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짜증과 화를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잘 준수하는 방역규칙을 어기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등등. 장기간의 전염병 유행의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주일 미사가 중지되거나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평화방송이나 줌(ZOOM)을 이용해서 미사참례를 하다 보니 성체도 모실 수 없고, 신자들 간의 친교도 제대로 나누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선 그런지 일선 본당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교우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자유롭게 성당에 갈 수도, 미사에 참례할 수도 없고, 성체를 모시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은 우리의 몸은 이미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이미 우리 주님을 늘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19사태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주님과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형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가톨릭 직장인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뉴시크노스케라멘탈

서울대학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1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양업은 부친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 1805-1839)과 모친 이성례(李聖禮 마리아, 1801-1840) 사이에서 1821년 3월 1일 6형제의 장남으로 충청도 홍주의 다락골(현 충남 청양 화성면 농암리 누곡)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본관은 경주이고, 아명은 정구(鼎九)이며 세례명은 토마스이다.

그의 증조부 최한일(漢驥)은 아우 한기(漢驥)와 함께 이준창(1752-1801)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 후 한일은 경주 이씨와 혼인하여 인주(仁柱)를 낳았는데, 순박함과 신심

이 뛰어났던 인주는 1791년 신해박해 때 많은 고초를 겪고 석방된 후 모친과 함께 청양 다락골로 피신하여 이후 3대가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최양업이 전해들은 할아버지는 강한 신심속에 순박함이 있는 신자였다. 자기 집 종들에게 ‘영감님, 마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명하였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남긴 세 가지 유언은, “무엇을 줄 때 거저 주어라, 보증이나 혼인 중매를 서지 말라. 이웃들과 항상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 할아버지



최양업 신부님 동상

##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1

의 정신이 그대로 최경환 성인과 최양업 신부에게 이어진 것이다.

박해 이후 최경환은 가족들이 냉담하게 되자 고향과 친척과 재산을 포기하고 서울 낙동(駱洞, 현 회현동)에 거처하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 여러 산골로 이사를 다녔다. 그러던 중 부평 지역 어느 교우촌에 있었을 때 장남이었던 15세 소년 최양업을 신학생으로 봉헌하였다. 최양업이 남긴 8번째 서한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일화가 전해진다.

“밭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일할 때나, 길에서 누구와 담화를 할 때나, 항상 천주교 교리와 신심 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 장을 보러 갈 때에는 물건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서 사옵니다. ...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악야 하지 않겠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 ... 파일을 추수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1851. 10.15 최양업 신부의 8번째 서한 중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장한 최양업이었기에 후에 성무활동 중에서도 항상 가장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교우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당고개 성지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례 마리아 복자이다. 같은 편지에서 최양업은 자신의 어머니가 내포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존창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다.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교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버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집안의 딸들에게서 두 명의 사제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의 딸 이 멜라니아는 김(대건, 金大建) 압드레아 신부님의 조모이고, 이(성례) 마리아는 이존창의 사촌 누이 멜라니아의 조카딸입니다.”

위의 내용 중에서 “가짜 사제”란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전에 잠시 “평신도 임시 교계제도”(가성직제)가 있었음을 가리킨다.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지만, 아직 천주교 교리에 밝지 못한 그들은 스스로 성사를 거행하였고,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북경으로부터 성직자를 요청하

였다. 비록 무지에 의해 시작한 성무활동이지만 마침내 그 후손 가운데 사제가 두 명이나 곧 김대건, 최양업 신부가 탄생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기해박해(1839)에 수리촌 교우들이 모두 끌려갔을 때 대부분의 교우들은 배교하고 풀려났지만, 남편 최경환은 마침내 이 에메렌시아 교우와 함께 옥사하고 만다. 이성례는 남편이 옥사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갇난아이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교를 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을 국경 넘어 중국으로 보냈다는 죄목으로 다시 붙들려 끝내 “위주치명(爲主致命,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하였다. 6형제 중 넷째였던 최우정 바실리오의 자신의 간단한 이력서를 남겼는데, 기해박해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 이때에 12개월 된 야고버(6형제 중 둘째)는 나이가 어려워서 옥사장에게 소청하여 옥중에 가끔씩 적에 푼푼이 주선하여 음식을 사 그 모친께 공궤(供饋)할 새, ... 서름 없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푼푼이 모아 가지고, 모친 치명하신다는 당일에 옥사쟁이를 찾아가서 묻되, ‘이번 행형하는 희망이(회자수)가 누구냐?’ 하니 ‘야무개라’ 하기에, 찾아가서 있는 전냥을 주며 부탁하기를, 모습이 이러이러한 죄수는 우리 모친이시니 칼을 갈아 행형하되 각별히 조심하기를 청하니, 무도한 희망이라도 칭찬하며 ‘열려 말라’ 하더라...”(최 바실리오 우정씨 이력서) 이렇게 최양업의 모친

이성례 마리아는 6형제 중 첫째를 교회에 봉헌하고, 막내를 옥중에서 하느님께 봉헌하며 자신도 순교의 영예를 얻었다.

신학생으로 선발된 최양업은 세 소년 중에 가장 먼저 1836년 2월 6일 한양의 모방 신부 댁에 도착하여 라틴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3월 14일에는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7월 11일에는 김대건이 합류하였으니, 가장 먼저 시작한 최양업은 세 소년 중에 선배 노릇을 했을 것이다. 이듬해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한 세 소년은 프랑스 선교사들 밑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최방제 신학생이 그해 11월 27일 16세(혹은 17세)로 사망하였다.

교장 칼리리 신부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편지에 담아 전한다.

“세 명 중에서 믿음이 더 강했고 신심이 더 깊었고, 앞으로 이 어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촉망되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 그가 라틴어 공부에서 보인 진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 동안 그는 성서를 알아듣게 낭독하였습니다. 이렇게 벌써 우리가 그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게 되었을 때, 지난달 중순경에 위열병에 걸렸습니다. ... 그리고 성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 하비에르는 나의 손을 잡고 ‘그라시아스 파트리(Gratias Patri, 신부님 감사합니다)’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그의 고상



##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믿음의 증거자

### 믿음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1

을 입에 갖다 대고 ‘착한 예수, 착한 천주’(Jesus bonus! Deus bonus!)를 열심히 되풀이 하였습니다. ... 우리의 성스러운 젊은이는 그의 천주님 곁으로 가기 위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방제 신학생의 형은 바로 **최형 베드로** 성인이다. 그의 활동 사항은 김대건이 부제품을 받고 한양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나올 것인데, 그의 형 최수(베드로)는 1866년 절두산 순교자이며, 누이는 동정녀로 살다가 1856년 경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신학생으로서 마카오로 유학 갔다가 사망한 것이다. 최형은 동생이 신학생으로 뽑혔을 때, 모방 신부의 복사를 서고 있었다. 어쩌면 나이가 더 어렸더라면 최형도 신학생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형은 그가 보여준 삶으로 동생이 다하지 못한 사제의 꿈을 충분히 실천했다고 본다. 그는 김대건의 복사를 맡아 라파엘호를 함께 타고, 김대건의 서품식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후에 베르뇌 주교, 다블뤼 주교님의 복사를 서면서 마지막에 서울에서 목판인쇄소를 운영하며 천주교 서적을 배포하다가 **병인박해**에 가장 먼저 순교한 이 중

의 하나가 된다. 최방제 신학생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소략하여 그의 집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좀 더 발굴해야 할 것이다.

마카오에 도착한 소년들은 대표부 안에 마련된 임시 조선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당시 마카오 대표는 르그레즈와(Legregeois) 신부였고, 신학교 교장은 칼리리(Callery)신부였으며, 이후에는 대표부에 거주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라틴어, 프랑스어, 교리, 성가, 철학, 신학 등을 가르쳤다. 스승들의 평가는 대부분 김대건 소년보다는 최양업이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기후의 어려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라틴어 기초를 먼저 다졌던 최양업이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최방제를 잃었던 그 해에 마카오에서는 소요 사태가 벌어져 이탈리아 선교사가 축출되기도 했지만, 본부에서의 학업은 계속 이어졌다. 그해에는 대표인 르그레즈와 신부만 요양차 마닐라에 다녀왔을 뿐이다. 그러나 1839년 조선에서 **기해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 마카오에도 아편전쟁의 여파로 본부의 선교사들과 두 소년은 마닐라의 도미니코회 수도원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 (계속) ☞



##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필리피서는 사도 바오로가 사랑하던 필리피 교회와의 친교와 일치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절대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신앙의 문헌입니다. 필리피 교회는 사도 바오로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도 바오로가 처음 설립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사도 16,11 이하 참조). 그는 옷감 장수 리디아의 도움으로 필리피에 머물며 교회를 설립했습니다(사도 16,14-40). 사도 바오로는 대부분의 선교 여정에서 자신이 번 돈으로 선교를 했는데 필리피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았습니다(필리 4,15-20; 2코린11,9).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필리피 공동체와 사도 바오로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 만든 신앙 공동체라 애정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감옥에 있을 때 필리피 교회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필리 1,7).

### ▣ 필리피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입니다.

필리피는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오로 사도 시대에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였고 무역 중심지로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필리피는 세 가지의 특권, 즉 자치 행정권, 납세 면제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로마에 사는 것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제3차 선교 여행 때에도 두 번씩이나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의 신자들도 사도 바오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의 표시로 사도에게 기꺼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복음 선포에 장애가 될 것을 꺼려서 손수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사도 바오로도 필리피 신자들의 도움만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사도 바오로는 짧은 시간 안에 필리피 도시에 견고한 교회를 건설하였습니다.

### ▣ 사도 바오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필리 1,12-26)

56~57년경 사도 바오로가 갇혔던 감옥은 에페소라고 짐작이 됩니다(2코린 11,23).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 중에 필리피서, 콜로새서, 에페소서, 그리고 필레몬서 등은 옥중문서라 불립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복음 전파를 당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필리 1,12-13)

이처럼 사도 바오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선포였습니다. 복음 선포의 주된 내용은 물론 부활한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필리 1,14) 자신의 감옥생활조차도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대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오로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더라도 복음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고(필리 1,27-30), 서로 한뜻으로 굳건히 합심하여 겸손할 것을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 사도 바오로는 여러 번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팔레스티나의 카이사리아에서(사도 25,4), 다음엔 로마에서도(사도 28,17) 감금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감옥살이를 했고(2코린 11,23), 특히 2-3년 간 머무른 에페소에서(사도 19,8-10)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1코린 15,32; 2코린 1,8-10; 11,23). 이들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만은 분명한데 어느 감옥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면 62-63년쯤이고, 에페소 감옥에서 쓰여졌다면 56-57년쯤으로 봅니다.

▣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도움을 준 필리피 교인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2차 전도여행(50-52년) 때 설립한 필리피 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필리 1,5). 그동안 사도 바오로에 대해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갖고있었던 필리피 교회는 그가 수감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에파프로디토스를 보내어 시중을 들게 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에파프로디토스는 사도 바오로를 돕던 중에 병이 들어 죽을 뻔 하였으나 다시 완쾌되었습니다. 에파프로디토스가 중병을 앓은 뒤 다시 필리피 교회로 돌아가는 편에, 사도 바오로는 그동안 필리피 교인들에게 가졌던 고마움을 편지로 전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굳건히 서서 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일치하라고 권유합니다.

▣ 필리피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필리피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필리피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겸손, 일치와 기쁨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마

음가짐에 대해 자상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① 감사의 인사(1,1-26)

사도 바오로는 먼저 그리운 필리피 교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늘 동참해 준 필리피 교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다면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1,20)’ 희망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② 종의 모습을 취하신 주님(1,27-2,30)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일깨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을 나누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③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3,1-4,9)

그리스도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는 한편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일치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지니게 되었듯이 무슨 일에서나 기도와 간구로써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의롭고 순결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행한다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 신자는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진지한 형제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유익한 것을 마음 속에 품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의 권리이며 은총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④ 축복의 기도와 끝 인사 (4,10-23)

필리피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축복을 빌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4,13).”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 준 필리피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피 교인들이 아쉬워하는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비는 인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기가 필리피인들에게 받은 선물들과 그 선물로 나타낸 애정에 깊이 감사하는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

한달 동안 성경읽기

□ 1장 1주간 필리피서 1, 1~1, 30	□ 2장 2주간 필리피서 2, 1~2, 30	□ 3장 3주간 필리피서 3, 1~3, 21	□ 4장 4주간 필리피서 4, 1~4, 23
--------------------------------	--------------------------------	--------------------------------	--------------------------------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필리피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1,1)
- ② 필리피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1,1)
- ③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5-6)
- ④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교회의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인은 누구입니까?(1,8)
- ⑤ 사도 바오로가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12-26)
- ⑥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교회에 디모테오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2,19)
- ⑦ 사도 바오로가 디모테오를 특히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20-22)
- ⑧ 필리피 교회에서는 사도 바오로를 돕기 위해 누구를 파견했나요?(2,25)
- ⑨ 사도 바오로가 육신의 모든 것을 해롭다고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3,7-9)
- ⑩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서 4장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나요?(4,9)

##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윤종식 디모테오 신부\_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전례학 교수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신앙이 드러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은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선고받거나 단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마태 12,37). 전례 생활에서도 어떤 용어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요일’이나, ‘주일’이 아닙니다. 일요일(日曜日)은 dies Solis(태양의 날, 영어 Sunday)에서 온 것이고, 주일(主日)은 라틴어 dominicus dies(주님의 날, 이탈리아 domenica)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태양 신을 모시던 관습에서 나온 ‘일요일’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생긴 ‘주일’의 사용은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태양 신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로 판단될 수 있는 용어사용이라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어느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신학교에서 삼중기도를 하는데, 평일과 달리 주일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는 3세기 초반 북아프리카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가 ‘기도에 대하여’(De oratione)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날’인 주일에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이는 매주 주일이 부활을 증언하는 날이기에, 속죄와 성찰의 자세인 무릎을 꿇지 않고 기쁨과 찬양의 자세인 선 자세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관습이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활 이후의 성령강림때까지의 시기를 설명하며 확인시켜줍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오는 이 날들은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의 기간이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고, 부활을 상징하는 뜻으로 서서 기도한다. 이런 관습은 모든 주일에 제단에서 지켜왔으며, 알렐루야를 부르며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기쁜 부활은 언제 벌어진 일일까요?

주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때는 “주간 첫날”(마태 28,1; 마르 16,9; 루카 24,1; 요한 20,1) 아침이었습니다. 거룩한 여인들과 베드로에게 발현하신 다음 “바로 그날”(루카 24,13)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십니다(참조. 루카 24,30-31). 이어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루카 24,41-4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1-23).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제자들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부활하신 분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종말론적 식사, 성령의 증여와 선교사로서의 교회의 파견 등은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교 파스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제나 “주간 첫날”에 일어난 구원사의 중심 사건입니다. 이 주간 첫날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날’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요한 묵시록은 주간 첫날을 “주님의 날”(1,10)로 부른 관습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2세기 초에 비시니아의 총독 플리니우스 2세는 그리스도인의 관습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해진 날 해 뜨기 전에 함께 모여 신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찬미가를 부른다.”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다.”(필리 2,11; 사도 2,36; 1코린 12,3 참조) 하고 말하며, 부활 선포의 완전한 의미를 그 말에 부여하였습니다. 5세기 초 교황 인노켄시우스 1세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부활 때문이며, 우리는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마다 부활을 경축합니다.”라고 하며,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확고한 관습을 증언해줍니다. 부활의 날인 주일은 과거 사건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당신 백성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생한 현존에 대한 경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은 성찬 모임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그리스도의 이 약속은 교회 생활의 비결이며, 교회 희망의 샘으로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주님의 현존은 사도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고, 세례를 통해 새롭게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로 인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세례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체의 구성원으로 구원을 받아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함께 모여 교회의 정체성

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카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빵을 떼어 나누고”라는 말은 성찬례에 대한 가장 오래된 표현입니다.

성찬례는 교회 생활의 실재에 대한 특히 집약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 미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체험하였던 것을 특별히 강렬하게 다시 체험합니다(요한 20,19 참조).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을 충실히 재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8). 미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kenosis)의 신비인 십자가 희생을 충실히 재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곧 성령을 보내 주시어 성령께서 축성의 말 속에 절대적이고 유일한 능력으로 작용하시게 해 달라는 기원이 담긴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희생 제사에 교회의 희생 제사를 결합시키십니다.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그분 신비체의 지체들의 희생 제사도 됩니다. 신자들의 삶, 찬미, 고통, 기도, 노동 등은 그리스도의 그것들과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봉헌과 결합되며, 이로써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68항).

신자들은 주일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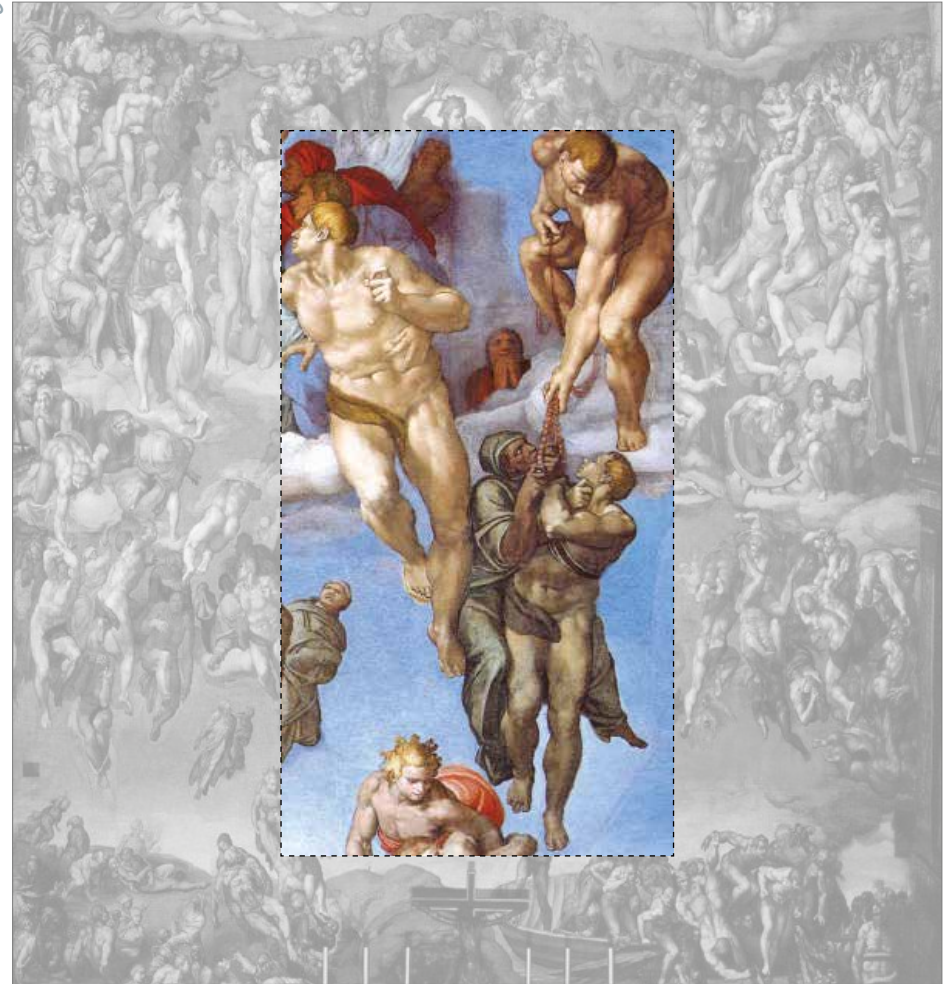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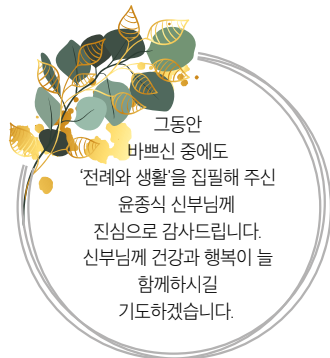
신자들은 심각한 장애가 없는 한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여 모든 신자에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제의 가능성을 제공할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장애, 그 밖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주일 미사에 참



여할 수 없는 신자들은 가급적이면 그날의 미사를 위하여 미사 전례서의 독서나 기도로서, 또한 성체에 대한 갈망으로 멀리서라도 주일 미사 거행과 가능한 한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법 제1248조 2항 참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하여 거룩한 곳에서 방송되는 성찬 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송은 한 장소에 모여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 형제적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주일의 의무를 본질적으로 이행하지는 못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서 「주님의 날」, 54항).

코로나 19라는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주일미사 참석이 용이하지 못한 현실에서 텔레비전이나 SNS를 통하여 미사를 시청하고 하느님 말씀과 강론을 듣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현존하신 주님께서 일상 생활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샬터교회 안중덕 목사가 쓴 글은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나눕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하라는 뜻입니다. 대면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II Giudizio Universale, 1536, 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 17X13M, Fresco, The Sistine Chapel Ceiling)

<묵주를 잡고 천국으로 오르는 영혼들>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무덤에서 부활한 영혼들은 선과 악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생전에 지은 선행과 죄업에 따라 구원을 받아 천상으로 올라가 영원한 복을 누리거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화면 중단 왼쪽에 재현된 <선택 받은 영혼들>은 이와 같은 가톨릭 교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좋은 예이다. 선택 받은 영혼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천상으로 오르는 영혼들과 혼자 힘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날아오르는 영혼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도상적 관점에서 가톨릭 교리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천사가 내려 준 묵주를 잡고 하늘로 향하는 흑인과 백인의 영혼이다. 구름 위에서 구부린 자세로 묵주를 내려뜨려 인종의 차별 없이 영혼을 끌어 올리려는 천사의 모습에서 범세계적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의 뒤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영혼의 자세에서 우리는 당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던 종교 개혁의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사상에 대항하여 묵주를 통한 기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확신하게 된다.

※ 출처: 박성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도상 다시 읽기: 전통의 계승과 혁신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28호, 2009.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 시몬

St. Simon (축일: 10월 28일)

박희전 루케시오 작은형제회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팝스타인 폴 사이먼(Paul Frederic Simon)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66년에 첫 앨범을 낸 팝음악의 전설로 살아있는 그룹 “사이먼 앤 가펩클”의 한명이지요. 그가 앨범으로 발표한 노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2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The Sound of Silence”, 다른 하나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입니다. 이 두 곡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인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위에 다리가 되어)를 좋아합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일부는 이렇습니다.

When you're weary (당신이 지치고 힘들때)

Feeling small (당신이 한없이 작다고 느껴질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당신 눈에 눈물이 날때)

I will dry them all (내가 그 눈물을 다 닦아드릴게요)

I am on your side (나는 당신 편이니깐요)

When times get rough (삶이 만만치 않게 느껴질 때)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친구 하나 없을 때)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로)

I will lay me down (저 자신이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위의 가사가 나타나듯이, 인생이 괴롭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 자신이 항상 곁에 있고, 또한 자신이 다리처럼 받쳐주고 이어주겠다는 마



음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우면서도 감동스러운 발견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노래를 만든 이 ‘폴 사이먼’의 성(姓)인 ‘사이먼’ (Simon)이 원래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가 그대로 드러난 노래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에, 저 유명한 노래의 가사 의미와 연관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메온’이라는 이름과 동일한 히브리어 어원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שמון이라고 하고, 이것을 라틴어화하면 Shim'(e)on (쉬몬 or 쉬메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의 말을 경청하다, ~를 따르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שמע (쉐마)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구약성경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자주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로 시작하는 것은 한분이신 하느님을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들어라”라는 말씀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 동사가 바로 저 “쉐마” 동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특성상 3인칭 직접목적어(~를/~을)가 동사에 바로 결합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형의 동사이며, 성경에서 3인칭은 많은 경우 야훼 하느님을 지칭할 때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God the Lord has heard him.” 즉, “주 하느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를 눈여겨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시몬 혹은 시메온이라는 이름은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주로 하느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셨음을, 그를 눈여겨보셨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성무일도 끝기도 후에 바치는 ‘시므온(시메온)의 노래’에도 이런 그의 이름이 나타내는 영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 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구세주 메시아가 도래할 때를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예언자 시메온의 간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시므온”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름 또한 주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의 소명에 대해 잘 알고 계셨기에, 시몬이라는 원래의 그의 이름에, 그리스어 이름인 Πέτρος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바위”라는 뜻인데, 그리하여 시몬이라는 이름 안에 있던 원래의 자질인 “뒷받침”이라는 점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반석이 되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몬, 혹은 시메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은 이 어지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잘 성찰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는데도 그를 가까이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잘 귀여겨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더없이 충실한 으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봉사 하면서 교회와 신자들을 ‘뒷받침’하는 데에 진력하였습니다.

위의 폴 사이먼이 지은 노래 “힘한 세상 위에 다리가 되어”와 “시몬”이라는 이름이 지닌 어원적 의미를 결합해서 해석하자면, 이 ‘시몬’ 혹은 ‘시메온’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의 영성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삶이 녹록치 않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시몬’들은 그를 정서적으로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고뇌에 귀기울이신다는 그런 ‘구원신앙’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고뇌에 ‘귀기울이고’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참된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저 노래 가사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힘한 세상에 다리처럼, 저를 당신을 위해 내려 놓을게요) 🎧



##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1

### 보조 생식술에 관한 생명윤리 2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지난 호에서 우리는 보조 생식술의 개념을 알아보고, 보조 생식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근본 가치 가운데 하나, **인간 배아의 존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언제부터 존재하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구분할 수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볼 때,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본 가치는 **혼인을 통한 인간의 생명 전달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성(性)이 지니는 인격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주는 부부 행위(성행위)는 서로에게 대한 온전한 자기 증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식을 하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혼인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배우자에게 온전히 내어 준 두 사람은 부부 행위를 통해서 그 봉헌을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부 행위는 새로운 인간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이러한 전달 방식은 인간이 지닌 존엄성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단순한 본능이나 충동의 결과가 아닌, 부부의 인격적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부부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일차와 출산의 두 가지 의미를 존중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간 생명의 탄생 과정이 가지

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 행위는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가 가지는 일차와 출산의 의미를 갈라놓는 방식들(체외수정, 피임의 실패 혹은 사랑이 없는 성행위 등)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인간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즉, 인간의 탄생 과정이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 보조 생식술의 다양한 기술들

보조 생식술은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체외수정 (IVF-ET)과 인공수정이라고 부르는 인공정액주입술(artificial insemination), 그리고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CSI)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근본 가치를 통해서 볼 때, 보조 생식술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불임/난임 부부들의 정당한 바램과는 별개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인간의 탄생과정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인공정액주입술)**은 남성의 정액을 여성의 자궁관 속에 주입하여, 정자와 난자가 여성의 태내에서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내수정’ 방법에 속합니다. 이 방법은 “난임의 원인이 자궁경관이나 점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궁의 후굴과 전굴 등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로는 임신이 어려운 경우, 또한 남성의 성교 장애로 질 내로 삽입이 어려운 경우, 정자의 수가 정상보다 적어 정액 1ml 당 정자수가 2,000만개 이하인 경우, 사정 시 정액이 0.5ml 이하인 경우, 그 외 정자가 자궁 내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등에 실행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을 위해서는 정액을 채취하고 수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액을 채취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부부의 성행위와 함께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성행위 없이, 자위행위 혹은 전기 사정을 통하거나 정낭, 정관에서 직접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우리가 흔히 ‘시험관 아기’라고 부르는 시술입니다. 체외수정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체외수정’이라고 부릅니다. 체외수정은 ‘나팔관 원인성 불임’, 즉, 배란된 난자가 나팔관을 통과하지 못하여 정자와 만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면역성 불임, 자궁내막염 등으로 인한 불임, 남성의 정자 부족이나 정자희소무력증 등의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체외수정의 시술과정은 호르몬 등의 다양한 약물을 여성에게 주입하여,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한 과배란 유도 과정, 성숙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 여성의 몸에 황체 호르몬을 투입하여 배아 이식을 준비하는 과정, 정액 채취,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 3-5일 정도의 수정란 배양, 여성의 자궁 안에 수정란 이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임신이 확인될 때 끝나게 됩니다.

체외 수정은 시술과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배란 자극 증후군입니다. 이는 많은 수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난소팽창, 복수축적, 전해질 불균형, 혈양 저하, 소변 감소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배란 유도를 통해 얻은 난자에서는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자궁외 임신의 확률도 높아지고, 임신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개의 수정란을 이식하기 때문에 3, 4 쌍둥

이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다태임신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이유로 그 가운데 하나 혹은 두 명의 배아나 태아를 낙태하게 배아/태아 감소술로 이어집니다.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CSI)**은 체외수정의 한 방법으로서,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스스로 수정되도록 하는 과정과 달리, 정자를 직접 난자의 세포질 내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 배우자간 보조생식술과 비배우자간 보조 생식술

보조 생식술은 사용되는 정자와 난자의 출처에 따라 배우자간 보조 생식술과 비배우자간 보조 생식술로 나뉩니다. 사용되는 정자와 난자가 혼인으로 맺어진 두 배우자나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된 커플에게서 채취한 것이라면 배우자간 보조 생식술이라고 말하고, 부부 이외의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정자나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비배우자간 보조 생식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부부가 모두 불임일 경우, 정자와 난자를 모두 공여자로부터 기증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 생식술의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보조 생식술의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김명희, 『보조생식술 그리고 생명윤리』, 『생명윤리포럼』, 제3권 제3호(2014), 2-3쪽.  
 (2)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2』, 정재우 옮김, 가톨릭출판사, 446-447쪽.  
 (3) 김명희, 『보조생식술 그리고 생명윤리』, 『생명윤리포럼』, 제3권 제3호(2014), 4-6쪽.  
 (4)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2』, 정재우 옮김, 가톨릭출판사, 453-460쪽.

## 코로나19 속의 신앙생활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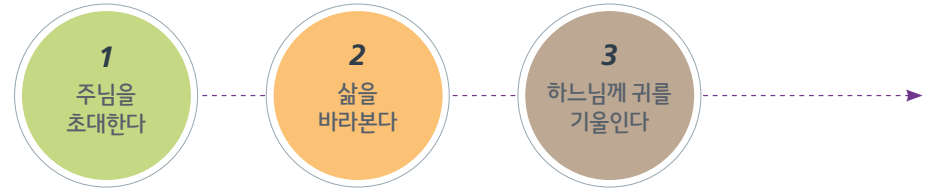
### 2. 삶을 바라본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미사는 이어지지만, 입은 마스크로 가로 막고, 성가와 기도 응답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미사시간이다. 신자간 소모임 금지로 친교 행위는 할 수도 없고, 장례미사도 사도예절이나 장례식장에서 봉헌되어야 할 정도이다.

고령자는 물론 병약자는 방송미사를 권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보여지 듯 외부환경에 개의치 않고 변하지 않는 항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에서 “이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라는 성 라우렌시오의 말씀처럼 진정 그리스도 신앙인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나 자신 스스로의 생활에서부터 퍼져나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나비효과’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 지기를 희망해 본다.



### Question

현재 나의 신앙생활 모습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콜로새서 4장 2절(공동번역)을 읽어주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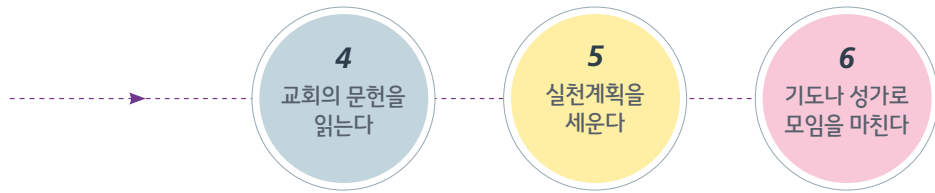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 성경 말씀이나 영적 독서에 관해 나누어봅시다.

###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일선에 서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인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 <교황 비오 12세, 새 추기경들에게 한 담화, 1946년 2월 20일; 평신도 그리스도인, 3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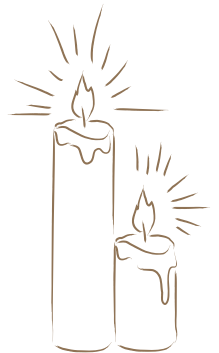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서울대학교구장 인준 2020. 2. 26>

### 5. 실천계획을 세운다.

###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 고전 음악을 듣다

# 모차르트 (1) - 구직여행에 나선 '신동'의 거듭된 좌절과 그 음악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지난 호의 하이든과는 나이 차가 24살 아래인 모차르트는 타고난 신동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 과장된 에피소드나 영화를 통해 모차르트의 왜곡된 이미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호부터는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동'의 이미지에 가려진 모차르트의 숨겨진 진실을 가려보자. 모차르트는 유럽을 폐허를 만들었던 30년 전쟁이 막 지나고 1956년 7년 전쟁이 시작되는 해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먼저 이번 호에서는 어린 '신동 모차르트'가 고난한 구직여행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창작의 열기로 가득찬 음악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잘츠부르크의 콜로레도 대주교에게 쫓겨나다시피 하여 빈으로 이주 하였던 1781년(25세)부터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는 1791년(35세)까지의 10년간의 '빈 모차르트' 음악을 정리하자.

볼프강 모차르트는 겨우 3살 때 누나 난네를 이 배우던 건반악기를 스스로 연주하기 시작하여 아버지 레오폴드를 놀라게 하였다. 신동

의 탄생이었다. 레오폴드는 독일 아우그스부르크 출신으로 잘츠부르크 대학 철학·법학부에서 유학하다가 취미였던 음악으로 궁정악단 바이올린 주자로 발탁되어 부악장에게 지 오른 인물이었다. 레오폴드는 당시 슈라텐바흐 대주교의 호의에 힘입어 장기간의 휴가를 내고 연주 여행을 기획하였다. 오늘날 일류 연주가들에게는 흔한 일상이지만, 당시 이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정이었다. 마부를 고용한 마차로 그런 장기간의 여행은 체력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행이었기에, 계속된 마차 여행은 모두를 병약하게 하였다. 특히 겨울의 추위를 마차에서 견디어내는 것은 가혹하였다. 실제로 가족 모두가 돌아가면서 아프게 되고 어머니는 결국 이로 인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고난한 연주여행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작은 도시 잘츠부르크의 한계를 벗어나 전 유럽을 돌며 당대의 음악대가에게 레슨을 받게 하는 등, 어찌보면 난네들과 볼프강 두 자녀의 음악적 성장을 위

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레오폴드가 끝내 궁정악장에 오르지 못한 것도 잦은 장기간의 휴직이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이었다.

볼프강이 7살이었던 1762년 1월에 시작한 첫 연주여행은 뮌헨-비인-프레스부르크(지금의 브라티슬라바)-빈을 거쳐, 1763년 1월 5일에 잘츠부르크에 되돌아오는 거의 서유럽을 전부 경유하는 대단한 경로였다. 1763년 6월부터 1763년 11월 라인란트, 브뤼셀을 순회하여 파리에 도착한 후 다섯 달이나 파리에 머물면서 그의 첫 작품인 K.6에서 K.9까지의 바이올린 소나타 4곡을 출판했다. 베르사이유에도 2주나 머물며 1764년 새해맞이 갈라 행사에도 참석하는 영예를 누렸다. 1764년 4월에 떠난 런던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버지 레오폴트의 병 때문이었다. 국왕 조지 3세 앞에서도 신동의 묘기를 선보였고, 이곳에서 바흐의 막내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와 그의 동료 카를 프리드리히 아벨

의 영향을 받아 불과 8살로 교향곡 작곡가로 데뷔하여 그의 첫 교향곡인 Eb장조 K.16과 D장조 K.19를 발표하였다. 1765-66년 겨울에는 연주여행에 지친 누나 난네들과 볼프강이 병이 나서 네덜란드에서 머물렀는데, 볼프강은 당시 오라녜공 빌렘 5세의 네덜란드 섭정 취임식을 위한 곡도 써냈다. 그 후 브뤼셀, 파리, 디종, 이옹, 제네바, 로잔, 베른, 취리히, 남독일의 도시를 거쳐 최종 기착지 뮌헨을 거쳐 1766년 11월 드디어 거의 3년 반 만에 잘츠부르크로 돌아왔다. 그동안 서유럽 최정상의 황실가족들 앞에서 눈을 가리거나 건반 손 위에 형검을 얹고 연주하는 신동의 묘기를 선보이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즉흥 연주를 선보이고 귀향한 잘츠부르크에서는 대성당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등, 어린 나이에도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었다. 아마도 평생 꺾이지 않았던 모차르트의 유별난 자존심은 이때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거기까지가 다였다. 그저 '묘기'에 매료된 명성은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모차르



모차르트

Ian Page/ The Mozartists  
 Grabmusik/ Bastien Und Bastienne  
 Release Date: September 14, 2018  
 Duration: 01:06:01  
 Label/ Catalog: Signum Classics/ SIGCD 547



트는 무언가 고정적인 활동기회를 잡아야 했다. 다시 11살 때인 1767년 9월, 2번째 빈 여행을 떠난다. 요제프 2세의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명성을 넘어 실제적인 무언가를 기대하였지만,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첫 번째 독일 오페라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Bastien und Bastienne)’ K.50조차 올리지도 못하고 ‘보아라, 바보 아가씨(La Finta semplice)’ K.51도 마리아 테레시아의 남편 상중에 우여곡절 끝에 거절당하고 별 소득없이 1769년 1월 잘츠부르크로 돌아왔다. 단지 1768년 12월 7일 바이젠호이스 성당의 헌당식의 미사곡을 황제 앞에서 지휘했을 뿐이었다.

다시 기회를 노린 모차르트는 이제는 오페라에 눈을 돌렸다. 13살이 되던 1769년부터 1773년에 걸쳐 3번 오페라의 본 고장 이탈리아를 여행하였다. 그는 이때 아직 15살이 채 되지 않은 소년으로서 밀라노 대공(마리

아 테레시아의 3남)의 결혼식에 오페라의 작곡 의뢰를 받고 ‘알바의 아스카니오(Ascanio in Alba)’ K.111 오페라를 상연(1770)하였고, 이어 계속 오페라 작곡의 의뢰를 받아 제2회(1771)와 제3회(1773)의 이탈리아 여행도 그곳에서 오페라를 작곡 상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비록 교황으로부터 황금박차 훈장까지 받았지만 그것에 그치고 말았다. 1771년 이탈리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후원자 슈라텐바흐 대주교가 세상을 떠나 새로이 취임한 콜로레도 대주교는 모차르트 대신 이탈리아인 피스키에티를 궁정악장에 임명하여 좌절시켰다. 그래도 모차르트는 1773년 밀라노에서 독창 모테트 ‘엑술타테 유빌라테(Exultate jubilate)’ K.165가 자신의 오페라 ‘루치오 실라(Lucio Silla)’ K.135에 출연 중인 카스트라토 라우치니의 노래로 선 보이는 등, 창작 열기는 계속되어 1773년 K.206, 1775년 K.211, K.216, K.218, K.219의 5곡의 바이올린 곡이





Maria João Pires  
 Mozart: Die Klaviersonaten  
 Release Date: October 16, 1991  
 Duration: 06:36:52  
 Label: Deutsche Grammophon / Universal Music Classics and Jazz  
 Format: Digital Download  
 (Including 'Piano Sonata No.8 in A minor, K.310')



Otto Klemperer/ New Philharmonia Orchestra  
 Mozart: Symphonies Nos. 29, 35 "Haffner", 38 "Prague", 39, 40 & 41 "Jupiter"  
 Release Date: March 7, 2006  
 Duration: 02:34:18  
 Label/ Catalog: EMI Music Distribution 45815



나왔다. 마치 바이올린이 사람의 목소리 같아 독창 모테트 '엑솔타테 유빌라테'와 맥을 같이한다. 1772년 5월에서 8월 사이 16번에서 21번의 교향곡, 1773년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22번에서 24번, 26번, 27번의 교향곡이 연이어 탄생한다. 1773년 여름 빈을 방문했을 때 25번, 28번에서 30번까지 작곡한 후, 그 뒤 1778년 6월의 31번 '파리'까지 긴 공백이 있다. 3악장으로 이루어진 1773년의 교향곡들에는 이탈리아 서곡의 경쾌한 분위기가 남아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다시 잘츠부르크로 별다른 소득없이 귀국하였지만, 피아노곡이 나오기 시작한다. 원래 모차르트가 여행을 계속하였던 어린 시절에는 그저 묘기에 가까운 즉흥연주였고, 당시에는 바이올린이 결들어진 소나타가 유행하였기 때문에 정작 피아노 독주곡은 없었다. 앞

서 언급하였던 1764년과 1766년의 6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작 모차르트를 신동으로 알렸던 피아노곡은, 앞서 파리에서 돌아온 직후 1766년 네 곡의 피아노 협주곡 K.37, K.39, K.40, K.41을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드디어 1774년 후반 첫 피아노소나타에 착수하여, 1775년초 모두 6곡을 완성하였다. 그래도 오페라는 계속하여 1775년 오페라 '가짜 정원사(La finta giardiniera)'와 '목동 왕(Il re pastore)' K.208을 공연하였다.

당시 잘츠부르크에서의 직무에 대한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이르러 갔는데, 20대에 접어들어 다른 궁정에 취직하기 위하여 1777년 가을부터 1779년까지 만하임, 파리를 구직여행하였다. 아버지의 휴직은 콜로레도 대주교에 의해 거절되고 간신히 모차르트만 허락받아 어머니만 동행하였다. 역시나 이 구직여행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음악면에서는 당대 최고수준의 만하임악파와 접촉하고 파리

에서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 등 수확은 컸다. 만하임에서 K.309, K.311, 파리에서 K.310 피아노 독주곡과 파리교향곡(1778) K.297, 300a 외에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다. 만하임에서의 알로이지아 베버와의 사랑, 파리에서의 어머니의 죽음 등, 인생의 경험도 많이 하였다. 특히 1778년 파리에서 어머니의 죽음이고 그대로 반영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K.310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 세 곡밖에 없는 단조 소나타의 첫 작품이다.

모차르트의 고난한 구직여행이 말해주는 것은 모차르트가 살았던 신성로마제국의 영역에는 아직 음악을 소비해 줄 '청중'이 그저 알량한 황족과 귀족들에 한정되었지만, 세 차례의 구직여행을 마친 20대 후반에 점차 모차르트는 점차 런던이나 파리의 경험으로 '시민'계층과 '계몽주의'와 함께 자라나는 일반시민계층의 청중에 어필할 음악에 눈을 뜨기 시작한

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의 무대경험으로 청중이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비범한 재능이 있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얼핏 연주하기 아주 쉬워보이지만 수준높은 변용이 숨어있는 '이중성'이 있다.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장조이면서도 우울한 이중성! 여기에 언급된 어린 10대 소년 모차르트의 모든 음악도 그러하다. 그렇기에 예를 들면 모차르트 교향곡 41곡은 처음 1번부터 41번까지 모두 들어볼 가치가 있다. 모차르트 애호가들은 초기 모차르트도 정말 좋아한다. 이러한 모차르트의 음악적 특성은 다음 호에서 모차르트의 남은 생애와 함께 분석하자. 🎧

## 이탈리아를 거닐다

### 시에나 : 예술과 역사, 건축의 미학적 경지를 보여주는 중세 도시

류쥘마\_ 사진작가, 이탈리아어통번역사회

시에나의 역사는 저 옛날 에트루리아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의 시에나를 만든 것은 13~14세기 중세 후기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로 피렌체에 버금가는 상업과 문화 중심지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예술과 문학, 팔리오 축제, 유서 깊은 대학, 그리고 훌륭한 요리까지 어우러지는 도시 시에나는 마치 13세기에서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발달한 예술적, 건축적 문화 유산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고

도시는 뛰어난 독창성과 예술성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미술이 발달해서 '시에나 파'라는 화파가 형성되기도 했는데, 중세에 접어들어 시에나는 피렌체와의 전쟁 시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이 때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들의 천재성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시에나의 두오모에는 도나텔로와 베르니니의 조각과,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에는 두초의 '마에스타', 산 도메니토 성당의 프레스코화 등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시에나의 두오모(Duomo), 팔라초 푸블리코(Palazzo pubblico), 토레 만자(Torre del Mangia)를



비롯한 새 건축물들이 들어섰는데 14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공사는 흑사병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에나에는 이런 예술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은 시에나 구시가지 그 자체일거 같습니다. **캄포 광장**은 부채

꼰 모양으로 가장자리에서 중심까지 서서히 좁아지면서 캄포 광장을 중심으로 **푸블리코 궁전**을 비롯한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분수가 펼쳐진 모습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마치 도시 전체가 광장 하나를 중심으로 압축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광장 한쪽에는 아코포 델라 퀘르차가 만든 **가이아 분수**가 있는데, 13세기부터 500년 동안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캄포 광장은 매년 여름 7월 2일과 8월 16일 두번에 걸쳐 시에나의 전통 축제인 **팔리오 경기**가 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팔리오는 시에나를 17구역으로 나누어 광장의 경주로를 세 바퀴 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600여 명의 시민이 전통 복장과 구역의 깃발을 들고 전통 행렬을 하는 장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앞에는 약 105m의 높이에서 광장을 내려다보는 토레 만자가 있습니다. 144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두오모의 종탑과 비슷한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힘과 신성한 힘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는 것으로, 탑 아래에는 고딕 양식의 벽감이 있는,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한 대리석 건물이자 마리아 예배당으로 알려진 **광장 교회**가 있습니다. 광장을 벗어나 역사 지구 더 깊숙히 들어가면 **산 도메니코 성당**과 **산타 마리아 성당** 등, 종교 건축물과 중세 풍의 거리가 이어집니다.

시에나에는 1400년대 처음 생겨 50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세계 최초의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monte dei Paschi)**은행이 있습니다. 시에나 시민들의 또 하나의 자존심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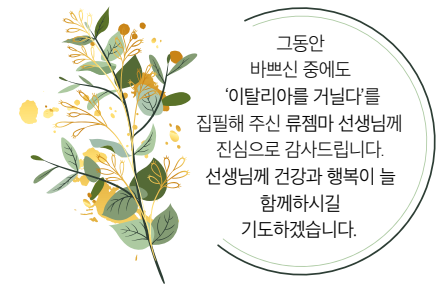
했다는 몬테 데이 파스키 은행은 그 시기에 최초의 은행이 형성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도시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 알게 해주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리대 횡포를 막으려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에 의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맡긴 농기구와 금 조각등을 담보로 잡고 고리대금 업자들보다는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시에나는 이탈리아의 후보 성인 중 한명인 **카타리나 성녀**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 카타리나 성녀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성녀

카타리나의 집(Santuario casa di Caterina)을 방문할 수 있고, 예전에는 가족의 부역이었던 '오라토리오 델라 쿠치나(Oratorio della cucina)'라는 곳을 개조하여 카타리나 성녀의 생애를 목상할 수 있는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도메니코 성당에는 성녀가 돌아가신 후에 성녀의 유해를 모셔와서 성당 내부에 작은 고딕식 경당을 짓고 모시게 되었는데, 2세기에 걸친 공사 끝에 종탑까지 완성한 성당은 성녀 카타리나에게 봉헌되어 바실리카 카타리나가 되었습니다.

카타리나 성녀의 도시이자 아름다운 중세 도

시인 시에나는 소도시지만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으로 볼거리가 많고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피렌체에서 버스로 1시간 15분, 기차로 1시간, 아시시에서는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토스카나의 평화로운 도시 시에나에서 이탈리아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 즐거운 시간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



## 행복한 책 읽기

# 교황님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성슬기 글라라. 가톨릭신문 기자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교황님은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발표하고 적은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게 됐지요. 신기하게도 우리 교황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 필요한 기쁨과 유머감각, 담대함과 열정을 강조해왔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유연함을 지니며 바로 성인을 닮아야 합니다.”

교황은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127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진 문장들이죠! 이런 문헌을 읽다 <교황님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까지 왔습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읽기 좋은 책입니다. 아마 마음이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겁니다.

### ■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관심의 중심에 있길 바랍니다

다. 제 마음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젊은이들의 시노드 준비를 위한 서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노드 당시 젊은이들에게 대놓고 호감을 마구 퍼붓기도 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약속이 간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교황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총 10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각 주제에는 적게는 5개, 많게는 13개의 소주제로 나눠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뒀습니다. 목차를 보며 궁금한 내용부터 찾아보면 더욱 책 읽는 맛이 납니다.

우선, 교황님이 젊은이들에게 하신 가장 유명한 말, ‘장화를 신은 젊은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의도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파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있는 젊은이’, 아니 더 나아가, ‘장화를 신은 젊은이’를 필요로 합니다. (...)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삶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 213쪽

또 항상 앞을 내다보시는 교황님은 때때로 남성우월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사회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여성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압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물을 줄 압니다. -52쪽

그리고 항상 품위에 대해서도 강조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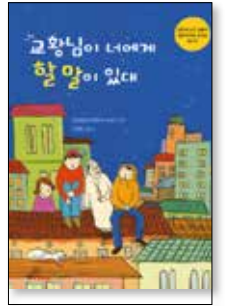
### ■ 희망은 청춘의 일부

책에서 교황님은 계속계속 반복적으로! 긍정적으로 희망을 향해 나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 책을 꼭 꺼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관주의와 불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요.

희망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희망 없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늙어버린 것입니다! 희망은 여러분 청춘의 일부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면,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쁨과 희망이 없는 젊은이는 불안합니다. 젊은이가 아닙니다. -233쪽

또 ‘불평의 여신’을 따르지 말라고도 타이르시지요. 한탄과 체념에 빠지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강조합니다. 길은 예수님이라고요!



교황님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잔프랑코 벤틀리 SDB 엮음 | 오영민 옮김 | 바오로말 | 2020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라, 마약을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런 문화에 대항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세상에 맞서라는 것, 그것은 목소리를 내되, 아름다움과 선과 진리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37쪽

코로나19 시대에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더 확장돼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교황님의 예리한 관심이 담긴 따뜻한 말을 전합니다.

젊음의 시기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풍부한 애정, 참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에 대한 욕구가 깊이, 또 활짝 피어나는 때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능력에는 참으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88~89쪽

### 책 속 명 장면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마태 10,16) 그분은 두 가지 덕행을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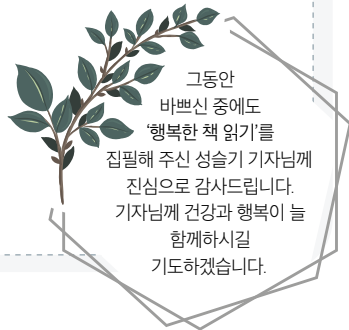
슬기롭고 순박한 것,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으로는 최신형 자동차를 손에 넣지도 못하고, 두둑한 돈지갑을 갖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을 뭔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자동차도, 돈도 없지만 품위가 있습니다! -42~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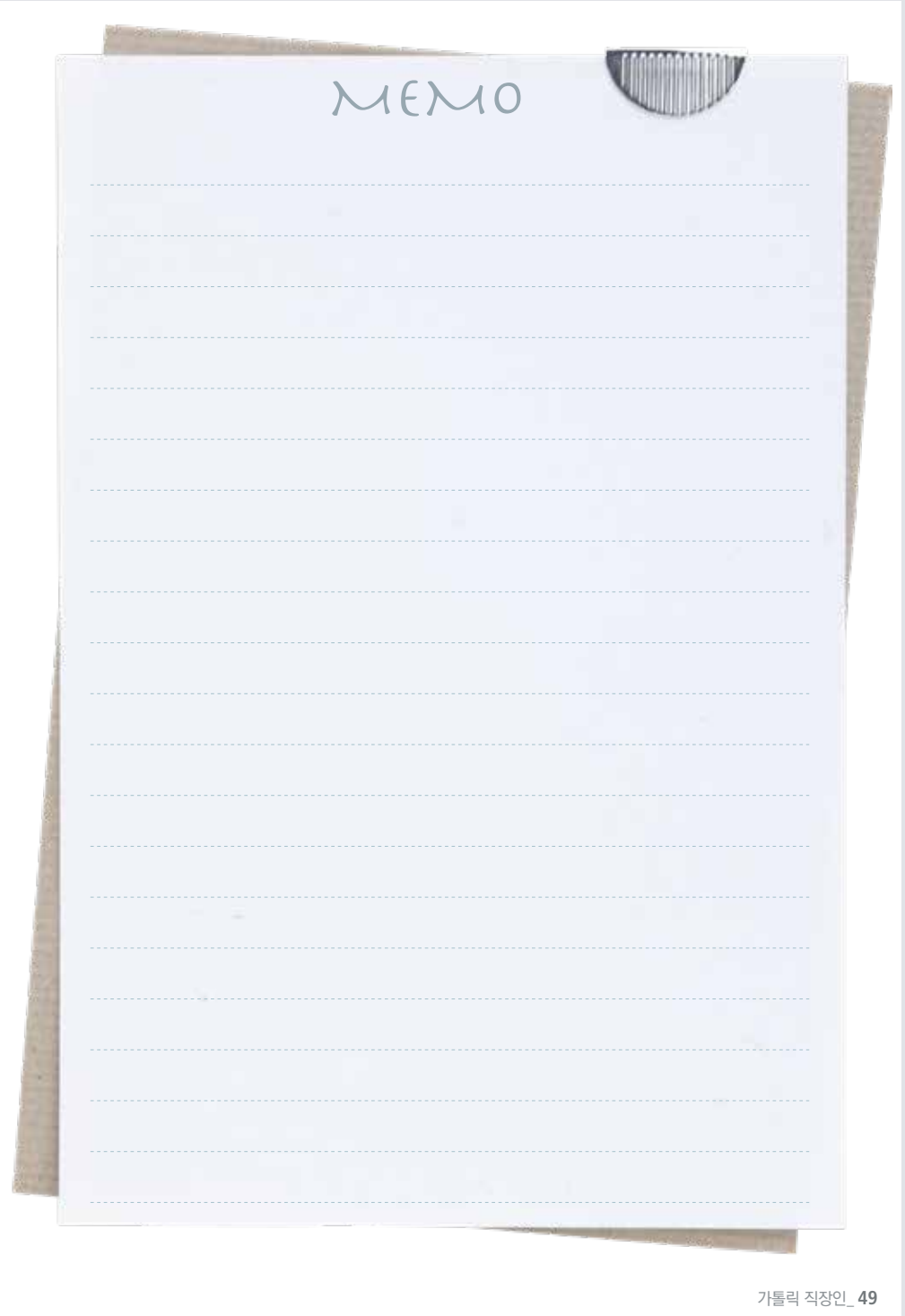
### 마지막 한 줄 평

친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삶의 지혜. 모르면 손해.



그동안 바쁜 신 중에도 '행복한 책 읽기'를 집필해 주신 성숙기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MEMO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 카뮈의 『페스트』: 인물과 주제

최대환 신부,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 소설 『페스트』를 닮아가는 우리의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온 시간이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심리적 방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치고, 공격적이 되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격려를 불어넣기 보다는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다른 이를 비난하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고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서로 연대와 동료애를 느끼는 사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학적, 정책적으로 극복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역병에 시달리며 고립감과 ‘인간 혐오증’으로 빠져들고,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려하면서 카뮈의 『페스트』를 읽다보면, 놀랄울 정도로 이러한 집단 심리를 잘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감탄하게 되기도 하고,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보

며 살짝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작품을 지금 만난 것이 얼마나 시의적절하며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인물과 주제

이 소설의 가진 매력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 작품은 ‘**유배와 고립의 정서**’라는 인간 실존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주제와 대결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누구나 암암리에 기분이나 예감의 방식으로 알아채긴 하지만, 언제나 모호함과 양가성(兩價性)을 수반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념적, 철학적 소설 작품들이 이런 벽에 빠져들고, 그래서 많은 작가나 사상가들은 보다 해석의 자유를 가진 시적인 형식을 통해 실존적 기본 정서를 환기시키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적 인간학의 영역에서 근본정서를 누구보

다도 깊이 통찰한 철학자 하이데거의 언어가 많은 경우 전통적 철학의 논증 구조를 넘어 서고 때로는 시적이고 비의적이며 난해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카뮈는 누구나 감지하지만 막상 보편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집단의 정서를 오랑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에 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도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이나 공허한 분석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그런 정서를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 드는 서사를 이끌어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서사가 설득력을 갖는 것은 자신이 매우 잘 아는 도시인 오랑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면서도 꼼꼼하고 주요 사건들과 상응하는 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부유하는 듯이 피상적이고 별 생각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와 인간에 대한 카뮈의 탁월하면서도 섬세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가진 힘은 주인공들의 분명하고 명료한 삶의 의지와 투신입니다. 세 명의 주요 주인공들인 리외와 타루, 그리고 랑베르, 그리고 그들의 협력자인 그랑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유에서이지만 페스트와 맞서 싸우는 외로운 투쟁

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개인적 우정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연대의 감정이 자리잡습니다. 카뮈는 높은 수준의 문학작품에 요구되기 마련인 인물의 입체감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 한 인물이 가진 복합성이나 시간에 따른 본질적 변화는 소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 랑베르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랑을 탈주하려 거듭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도시에 남기로 결심하고, 페스트와 맞서 싸우는데 함께 합니다. 스스로를 국외자로 바라보다가 자신의 일로서 받아들이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소설의 흐름 속에서 랑베르라는 등장인물의 본성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소설 초반부터 음울하고 어두운, 그리고 파악하기 어려운 불쾌감을 주었던 코타르는 병이 창궐하는 동안에 여과없는 악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막상 페스트가 도시에서 사라졌을 때는 극도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말하자면 카뮈는 이 작품에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일반적으로 문학성을 추구하는 소설들이 피하는 전형성을 인물에 부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이 작품의 문학성을 폄하하는 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전형성은 주제와 관련해

서 생각해보면 반드시 결함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트가 상징하는 절대적인 도전의 시기에 있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유일한 희망이라는 확신이 작가에게 있었고, 그래서 주인공들의 시종일관 곳곳한 모습은 문학적 미묘함을 포기하면서라도 작가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소시민이 영웅이 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영웅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소설의 절정인 4부에 나오는, 바닷가에서 리외와 타루가 나누는 긴 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루는 자신이 살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들려줍니다. 이는 사법체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결정하는 재판에, 치안검사인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참여하고 목격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서 긴 방황과 고민이 시작되고, 이러한 젊은 시절의 투쟁은 페스트의 희생자들을 위해 투신하는 것으로 정점에 달하는 것이지요. 타루는 대화의 끝 무렵에 심지어 자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 없이 ‘성자’가 되는 것을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자주 언급되는 이 말은 시지포스적인 실존적 영웅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

범한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타인의 생명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체제나 외적인 해결이전에 각자가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내면 깊이 자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카뮈는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위에서 말한 대화의 장면에 나오는, 타루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유명한 말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편에 서서 이 병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번에 유행한 이 병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래요, 리외.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나는 인생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페스트 앞에서 무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칫 방심한 순간에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전염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병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면 건강, 청렴 결백함, 순결함 등은 의지의 소산이에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될 의지 말이에요. 정직한 사

람, 거의 아무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가능한 한 방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절대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의지와 긴장이 필요한 법이죠! 그래요, 리외. 페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페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페스트 환자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페스트 환자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죽음이 아니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거고요.” (『페스트』, 유희식 옮김, 문학동네, 2015)

다음 호에는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리외의 시점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신학적 성찰을 더하려 합니다. 🍷



Albert Camus(7 November 1913 – 4 January 1960) was a French philosopher, author, and journalist. He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t the age of 44 in 1957, the second-youngest recipient in history.





### 티나씨의 티비보기

## SF 공포물: 종교를 향한 무거운 질문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국내 온라인 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넷플릭스’에 맞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업무에 사용하는 종교 뉴스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였다. 천주교 주요 키워드의 하나인 ‘수녀’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이러했다.

‘웨이브’의 8부작 드라마 <SF8>의 대표작인 ‘간호중’에는 식물인간 환자의 보호자를 꼭 닮은 간병 로봇과 환자들을 방문하며 기도하는 사비나 수녀가 등장한다. 간병의 고통이 극심해지면서 환자의 생명 유지에 대한 간병 로봇의 판단과 사비나 수녀의 신념이 충돌한다. (<SF8>은 최초 공개 이후 MBC TV로도 방송되었다.)

SF는 소설이나 만화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장르였다. 대담하고 독특한 설정들은 이야기의 매력을 끌어올렸고, 영상 업계의 첨단 그래픽 기술은 상상을 실감나게 시각화할 수단이 되었다. 실제로 <SF8>에서 ‘간호중’,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등은

소설을 극화한 작품이다.

SF의 극적 긴장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첨단 과학기술과 윤리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개인과 사회의 결핍과 욕구를 충족하고자 과학기술이 추구되지만 이를 실현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는 식이다. 방대하고 신속한 데이터 수집과 학습(딥 러닝)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자율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좌절감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된다.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간병 로봇 ‘간호중’은 보호자와 똑같은 외형을 하고, 최고 사양으로 보호자 돌봄 기능까지 장착했다. 소생의 가망이 없는 10년의 간병으로 보호자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옆 병실의 보호자가 저가 로봇의 오류와 간병 스트레스에 지쳐 자살하자 간호중은 합리적인 선택을 고려하면서, 병원 사도직에 종사하는 사비나 수녀에게 상담 전화를 건다.

눈에 띄는 설정은 사비나 수녀의 미미한 존재감이다. 생명윤리가 개인의 비참한 현실 앞에 흔들리는 것은 둘째 문제다. 로봇이 정서적 돌봄까지 대신하는 설정 탓인지 환자를 찾아와 위로하고 기도하는 수녀의 행보를 피상적으로 묘사된다. 반면 간호중은 장기간의 간병 현장 경험을 축적하면서 판단력은 물론 인간의 감정까지 습득하며 수녀의 무력감을 증폭시킨다.

종교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설정은 다른 단편인 ‘인간 증명’과 ‘만신’에도 등장한다. ‘인간 증명’의 어머니는 최근 교회에 확산 중인 사별자 돌봄과는 반대의 선택을 한다. 죽은 아들의 남은 뇌 조직을 아들의 외모를 본 뜬 인공지능에게 이식해 애도를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 존재의 소멸을 요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한 별개의 생명체를 소유주로서 데리고 살게 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운세 어플리케이션 ‘만신’은 적중률 96.3%의 국민 어플리케이션이다. 위험과 실패를 예방하는 만신과

그 개발자를 향한 찬사는 경배로 변질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만신을 찬양하는 집회가 열리기에 이른다. 만신 때문에 불행이 왔다고 믿는 여주인공과 만신을 맹신하는 남주인공은 만신의 밀실을 찾아내지만, 그들을 만신에게서 해방시킨 것은 개발자가 아니라 자체 시스템의 오류였다.

작품 속 세상에서 과학기술은 인간의 고통과 실패를 최소화할 수단으로 도입된다. 기술이 고통을 예방하는 세상에서 종교의 치유와 위안은 입지를 잃어 간다. 인간의 종교심이 하나님을 떠나 과학기술을 향하고 딥러닝으로 단련된 인공지능의 선택이 고통을 낳는 설정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에 대한 응답도 종교가 탐구할 영역이고 실제로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연구가 교회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앞서 날아가는 인간의 상상력을 쫓아가기에도 버거운 것이 오늘날 종교의 고민이다. ●



## 성미술 이야기

# 빛이 있으라

정용모 신부, 서울대학교 성미술 담당

성유리화 작품 <빛이 있으라>는 서울 혜화동 성당에 있다. 우리나라 교회 미술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당은 1960년에 축복식을 가졌는데 건축가 이희태(1925-1981)의 설계로 지어졌다. 이곳에는 여러 화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 제작한 교회 미술품이 자리 잡고 있다.

혜화동 성당의 벽면 전체를 장식한 유리화는 우리나라 유리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남규(루카, 1931-1993) 화백의 작품이다. 성당 내부의 양쪽 벽면에 있는 추상과 구상 형태의 유리화는 사람들을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그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는 성당 내부로 들어가는 전실, 즉 나르텍스(narthex)에 있다.

교회 건축에서 전실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준비 공간이다. 즉 혼잡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정화하는 장소이다. 전실을 통과하면 비로소 미사가 봉헌되는 성

당 내부가 나오고 내부의 가장 먼 곳에 주님의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제대가 보인다.

전통적으로 교회 건축에서는 전실에 세례 장소와 세례대를 설치하여 예비자들이 이곳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미사인 성체성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세례성사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화 <빛이 있으라>는 성당의 전실 오른쪽 창문을 넓게 장식해 준다. 작품의 제목은 구약성서의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창세기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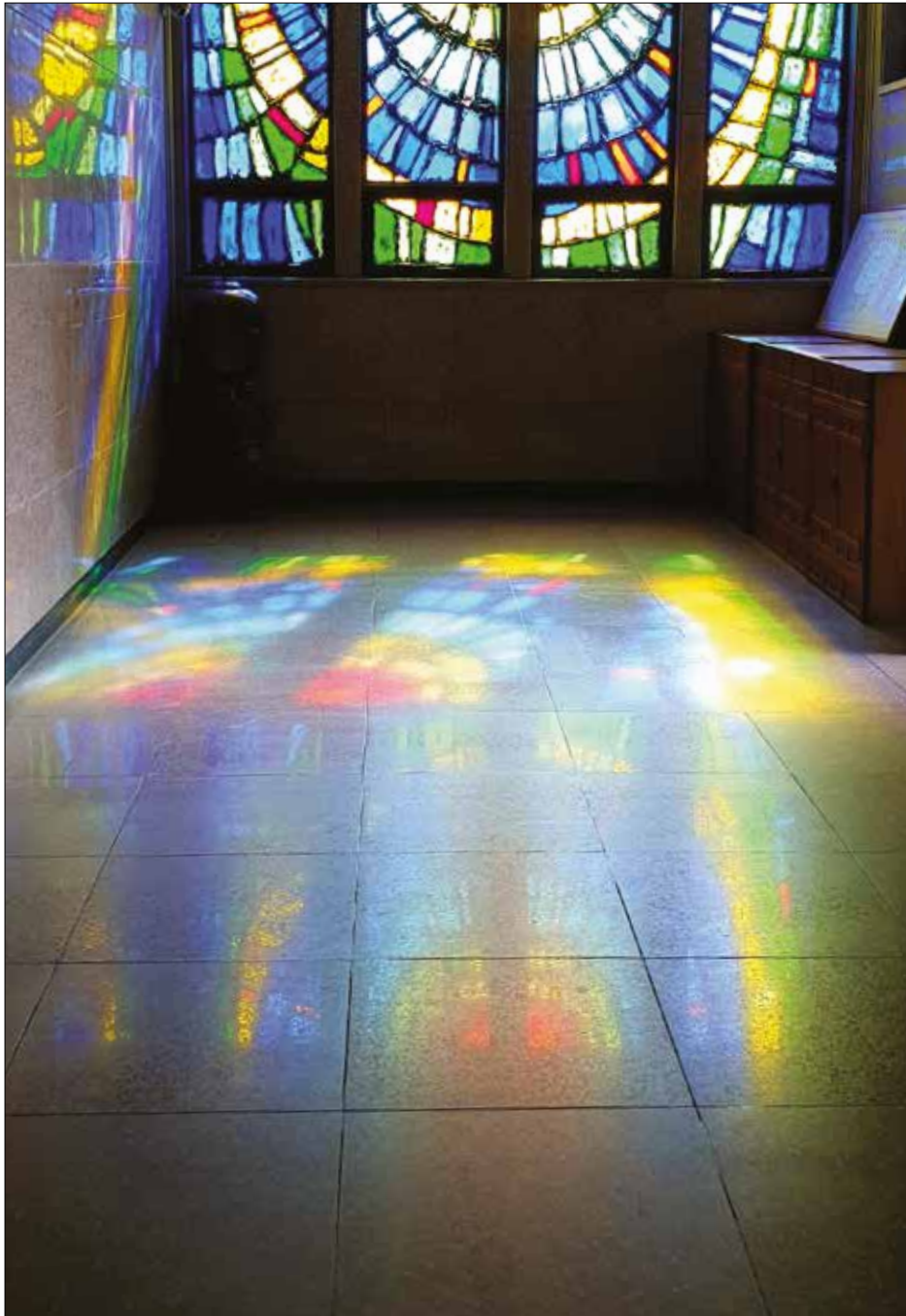


빛이 있으라  
이남규(루카, 1931-1993),  
유리화, 1989년-1991년,  
서울 혜화동 성당

<빛이 있으라> 유리화에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사용하여 하느님의 빛과 은총이 온 세상에 가득 내리는 것을 표현했다. 상단의 빨간 색은 하느님의 사랑, 노란 색은 하느님의 은총, 파란 색은 하느님의 신비, 녹색은 하느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온 우주와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을 추상 형태로 표현했다. 이 유리화 바로 아래에는 이순석(1905-1986) 공예가가 대리석으로 제작한 항아리 모양의 세례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단 옆에 옮겨졌다.

유리화 <빛이 있으라>는 성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상기시켜 주

면서 자신의 세례를 떠올리게 해 준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느님의 은총은 커다란 기적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하느님의 은총 없이 우리는 단 하루, 단 한 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빛이 있으라>는 일깨워준다. ☪





Cathedral of Morelia is a Baroque-style, Roman Catholic cathedral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of Morelia, Michoacán, Mexico. It is the seat of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Morelia.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910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